

3.

2018학년도

인문계열 3회차 해설

인문계열 3회차 공통문항

출제 의도

현재 한국 사회는 심각한 사회적 불신이 야기하는 문제들에 노출되어 있다. 입시 비리, 채용 비리 등 각종 비리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며, 그러한 문제는 학연, 지연, 혈연, 성별과 복잡하게 얽혀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의 한 가지 해결 방안으로서 2017년 정부 정책으로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었다. 이것은 비합리적 요소가 공정한 절차를 훼손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현재 한국 사회가 매우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실현된 정책이라고 할 것이다.

출제 의도는 다음과 같다. 블라인드 채용과 같은 절차적 공정성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사회 정의 및 절차적 공정성을 설명해 온 이론적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한 그것은 어떠한 취지와 내용을 가진 것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이 적용되는 과정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고찰하며, 한 발 더 나아가 그러한 정책 실현에는 어떠한 한계도 보이는데 대해 주어진 지문 속에서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 김진호, 「블라인드 채용」(『경북매일』 게재일 2017.10.24.에서 발췌 후 운문)

제시문 <가>는 2017년도부터 시행된 '블라인드 채용'의 필요성과 그 사회적 논란에 대해 말하고 있는 신문 칼럼이다. 블라인드 채용은 입사지원서에 학력, 신체조건,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평가하는 채용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채용 방식이 도입된 이유는 학연, 혈연, 지연, 성별 등 비합리적인 요소들이 채용의 기준을 침범하여 작용할 가능성을 막고, 그 결과로 절차적 공정성이라는 사회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그 적용을 두고서는 찬반양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절차적 공정성을 달성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과연 학력이나 학점을 평가기준에서 배제하는 것이 절차적 공정성과 관련이 있는가 하는 반론도 존재한다.

제시문 <나> : 존 롤스, 『정의론』(이학사, 2003년, 46~47쪽, 135~137쪽에서 발췌 후 운문)

제시문 <나>는 사회 정의 및 절차적 공정성을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로 항상 참조되는 롤스의 『정의론』에서 발췌한 지문이다. 롤스에 따르면,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개인마다 다른 우연한 사회적 상황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가능한 규칙이 요구되는 데, 그러한 규칙은 그것을 정하는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가치관 등을 모른다는 '무지의 베일'을 가정할 때에 달성된다고 말한다. 즉 그럴 때에만 개인의 태생이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정의의 원칙들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현실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순수한 가상적 상황'으로 이해해야만 할 것이다.

제시문 <다> : 허태균, 『어쩌다 한국인』(중앙books, 2015년, 345~346쪽, 356~357쪽에서 발췌 후 운문)

제시문 <다>는 절차적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회심리적인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상황에서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예측 가능하고 객관화할 수 있는 수치화가 중요해진다. 이와 같은 객관적 수치화를 통해 부정과 불공정이 개입될 소지를 없애고 그 결과로 절차적 공정성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객관적 수치화, 절차적 공정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먼저 이러한 정량평가는 그 직업이 요구하는 개인의 열정과 같은 부분을 평가하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정량적인 부분의 강조는 오히려 획일성을 낳을 수도 있어 사회의 다양성, 창의성을 훼손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문항 해설

제시된 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 정책에 대해 아래 <그림>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나>와 <다>에 근거하여 그 의의와 한계를 기술하시오. (1,000±100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래 네 가지 사고의 흐름과 종합이 요구된다.

■ 답안구성요소

① <가>에서 말하는 ‘블라인드 채용’ 정책에 대해 ‘사회 신뢰 조사’와 연결하여 사고하기.

<가>는 블라인드 채용 정책의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정책은 학연, 혈연, 지연 등 채용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합리적 요소를 시정하고, 직무능력이라는 객관적 지표에 따라 인재를 채용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시행의 근간에는 <그림1>에서 나타나듯, 한국의 사회신뢰도가 여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림2>에서 나타나듯, 그 이유가 가족, 친척, 직장 등 사적관계 및 소속집단에 대한 신뢰도보다, 사법, 행정, 국회 등 공적영역에 대한 신뢰도가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② <나>와 <다>에 근거하여 ‘블라인드 채용’ 정책의 의의에 대해 정리하기.

블라인드 채용은 <나>에서 설명하고 있는 순수 절차적 정의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순수 절차적 정의는 공정한 절차만 지켜진다면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공정할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다. 이러한 순수 절차적 정의는 ‘무지의 베일’을 가정하는데, 그것은 개인의 출생이나 신체적 특성, 사회적 관계 등 우연적이며, 비합리적인 요소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는 한국 사회가 공적 영역에서 신뢰도가 떨어지기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수치 등 객관적 증거에 몰두하는 모습을 설명한다. 즉 한국사회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사회이기에 절차적 공정성이 더욱 요구된다는 것이다.

③ <나>와 <다>에 근거하여 ‘블라인드 채용’ 정책의 한계에 대해 정리하기.

순수 절차적 정의가 무지의 베일을 ‘이상적’으로 가정할 때 가능해 진다는 사실에서 추론되듯, 블라인드 채용의 시행에는 학력과 학점 등을 기입하지 않는 것을 두고 그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다>도 마찬가지로 절차적 정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다>는 절차적 정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열정 등은 평가할 수 없으며, 눈에 보이는 객관적 지표만이 강조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획일성을 초래하거나 여러 개성 및 다양성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다만 <나>의 입장에서 볼 때 <다>의 주장은 여전히 절차적 정의를 훼손할 수 있음도 지적될 수 있다.

예시 답안

<가>는 블라인드 채용 정책의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정책은 학연, 혈연, 지연 등 채용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합리적 요소를 시정하고, 직무능력이라는 객관적 지표에 따라 인재를 채용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시행의 근간에는 <그림1>에서 나타나듯, 한국의 사회신뢰도가 여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림2>에서 나타나듯, 그 이유가 가족, 친척, 직장 등 사적관계 및 소속집단에 대한 신뢰도보다, 사법, 행정, 국회 등 공적영역에 대한 신뢰도가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와 같은 블라인드 채용은 <나>에서 설명하고 있는 순수 절차적 정의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순수 절차적 정의는 공정한 절차만 지켜진다면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공정할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다. 이러한 순수 절차적 정의는 ‘무지의 베일’을 가정하는데, 그것은 개인의 출생이나 신체적 특성, 사회적 관계 등 우연적이며, 비합리적인 요소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는 한국 사회가 공적 영역에서 신뢰도가 떨어지기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수치 등 객관적 증거에 몰두하는 모습을 설명한다. 즉 한국사회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사회이기에 절차적 공정성이 더욱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블라인드 채용은 옹호될 것이다.

다만 순수 절차적 정의가 무지의 베일을 ‘이상적’으로 가정할 때 가능해 진다는 사실에서 추론되듯, 블라인드 채용의 시행에는 학력과 학점 등을 기입하지 않는 것을 두고 그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다>도 마찬가지로 절차적 정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다>는 절차적 정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열정 등은 평가할 수 없으며, 눈에 보이는 객관적 지표만이 강조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획일성을 초래하거나 여러 개성 및 다양성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인문계열 3회차 계열문항

출제 의도

<가>는 사회의 금기를 깨뜨린 한 재봉직공의 일화를 담고 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그 당시 금기시되고 있던 영어로 된 성서 공부를 하였다. 그러나 별 뚜렷한 까닭 없이 이 행위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번민하고 있다. 아무에게도 물리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은 그의 행동을 제한하는 교회의 행동은 정당한 것인가?

<나> 역시 사회의 금기를 깨뜨리고 있는 행위에 대한 일화를 담고 있다. 뱀을 먹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금기시되는 행위였다. 그러나 차차 고을 사람들이 그 행위에 동조하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는다. 관찰자인 '나'는 그들을 평하며 싫은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 또한 딱하게 여기는 마음이 많다. '나'의 이런 행위는 정당한 것인가?

<다>는 타인의 행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 타인의 행위에 대한 판단은 자신의 마음에 들고 들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의 절대적인 기준은 남에 물리적인 해악을 끼치는가의 여부이다. 만약 남에게 물리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어떤 방향으로 강제할 수 없다. 그 일이 비난받을 만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그 자체로 그 행위자는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에게 물리적인 해악을 끼치는 경우라면 사회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에게 그에 합당한 징계를 가할 수 있다.

이 세 지문의 연관성은 <가>·<나>에서 사회적 금기를 깨뜨린 행위가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다>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 판단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즉, <가>는 금기를 깨뜨린 후 법적인 제재, 즉 강제적인 처벌을 받고 있고, <나>는 비난과 동정을 받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들에게 가하고 있는 법적인 처벌과 비난은 <다>의 준칙에서 볼 때 정당한 것인가? 이것을 논리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제시문 요약

<가> 김성한의 『바비도』

위클리프의 영역 복음서를 읽는 백성들이 늘어나자 성서의 진리가 성직자들의 독점에서 벗어나 백성들끼리의 새로운 해석도 가능하게 되었다. 성서의 기존 해석에 대한 불신이 퍼지게 되자 이들을 이교도라 규정하고 그들을 화형으로 처벌하게 된다. 바비도 또한 영어 번역 복음서의 비밀독회에 참여하는 인물이다. 그런데 그는 지금 고민에 빠져 있다. 자기를 이끌던 혁신적 지도자들도 모두 그 잘못을 인정해 버리고, 자기와 함께 성서를 공부하던 재봉직공이나 가죽직공의 동료들 또한 이 행위를 회개하여 구차한 목숨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바비도는 이러한 상황이 몹시 괴롭다. 가난한 자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원래 뜻인데, 어쩌서 자기 나라의 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것이 어쩌서 사형을 받아야 할 일인가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있다.

<나> 강희맹, 『담사설』

명주 땅에는 뱀을 씹어 먹는 자들이 있다. 처음에는 일부만 뱀을 먹었고 그들은 그 행위로 비난을 받았지만, 해가 지날수록 그 숫자가 늘어나면서 비난 받는 일도 사라졌다. 뱀이란 것은 벌레의 종류인지라 누구라도 그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면 천하게 생각하고 또 구토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의 천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명주 땅에서 천성을 오롯이 지니고 있던 사람들이 점차 풍속에 물들면서 그 본성을 잃게 되었다. 그리고 물욕에 가려져서 다시 옳고 그름을 따지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본성을 잃게 된 것은 처음의 어떤 이의 나쁜 유혹 때문이다. 뱀도 물고기나 다름 바 없고 특히 생김새로 보자면 장어나 다름 바 없는데 이를 먹어 보니 큰 탈도 없는지라 차차 익숙해져 그렇게 된 것이다. 처음 나무라던 이도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맛을 보고는 그 유혹에 빠져드니, 이는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다>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현재의 가치관에 배치되거나 인간적 존엄을 지니지 못하여 비난 받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친 까닭에 비난을 받는 것은 다르다.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은 경우 우리는 그를 멀리할 수는 있지만 그를 강제할 수는 없다. 그는 이미 그 자체로 자신의 삶의 망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에게 동정이나 싫어함의 대상일 수는 있지만, 공공의 적이 되어 어떤 벌을 받아야할 존재는 아니다. 그를 가장 심하게 다루는 것은 그냥 내버려두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에게 물리적인 해악을 가한 경우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사회는 구성원들을 보호해야 하므로 그에게 명백한 징계를 가해야 한다. 즉, 그를 범법자로 규정하고 그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

문항 해설

문제 : <가>의 ‘바비도’의 행위와 <나>의 ‘뱀을 씹어 먹는 자’의 행위가 지닌 공통 속성들을 포착하고, <다>의 준칙을 적용하여 이 행위에 대한 <가>의 ‘순회재판소’와 <나>의 ‘나’의 대응 방식을 평가하시오.

‘바비도의 행위’란 영어로 된 성경을 읽는 것이다. ‘뱀을 씹어 먹는 자의 행위’란 뱀을 씹어 먹는 것이다. 이 둘의 공통 속성은 첫째, 당시 사회의 금기를 깨뜨리는 행위라는 것이다. 종교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그어져 있던 선을 넘는 행위들이다. 둘째, 남에게 물리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는 일이라는 점이다. 영어로 된 성경을 읽는 것을 남에게 물리적인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 보기는 어려우며, 뱀을 먹는 것 또한 다소 혐오스럽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남에게 어떤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일은 아니라 할 수 있다. (또다른 속성으로 점차 민중들로부터 호응 받은 행위를 들 수도 있다.)

<다>의 준칙이란, 남에게 물리적 해악을 끼치지 않은 경우 그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싫어하거나 동정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으며, 남에게 물리적 해악을 끼친 경우라면 그를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순회재판소의 행동은 도를 넘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남에게 물리적 해악을 끼치지 않는 일에 대해 법적인 잣대를 대어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행위는 이 준칙에 부합한다. 비난과 싫어함의 선에서 멈추고 있기 때문이다.

예시 답안

<가>의 바비도와 <나>의 뱀 씹어 먹는 자의 행위적 공통 속성은 기존의 금기를 깨뜨리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비도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 읽음으로써 기존의 성직자들이 전유하던 라틴어 위주의 복음 상황을 깨뜨리고 있고, 뱀 씹어 먹는 자는 뱀을 거리낌 없이 씹어 먹음으로써 뱀을 먹지 않던 기존의 금기를 깨뜨리고 있다. 또 다른 공통 속성은 이러한 행위들은 그들의 개인적 차원의 선호에 의한 것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물리적 해악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영어로 풀이한 성경을 읽는 것은 자신의 종교적 자유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물리적인 해를 끼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뱀을 씹어 먹는 것 또한 자신의 기호에 관련된 것일 뿐, 다른 사람들에게 물리적 해악을 끼치지 않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다>의 준칙에서 <가>의 순회재판소의 행위를 평가해 보자면, 그릇된 행위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어로 복음을 번역하여 공부하는 이들을 법적으로 강제하여 법정에서 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대응은 <다>의 준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에서 법적인 제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오로지 남에게 물리적인 해악을 끼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바, 영어로 번역하여 성경을 읽는 것은 남에게 그러한 해악을 끼치는 것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의 준칙에서 <나>의 ‘나’의 행위를 평가해 보자면 정당한 행위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나>에서 사람들이 뱀을 먹는 것은 비록 인간의 존엄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지만, 남에게는 어떤 물리적 해악도 끼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즉, 비록 <나>의 ‘나’는 뱀을 먹는 행위가 인간의 오묘한 천성을 잃은, 더러운 습관에 해당하는 것이라 보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 ‘딱한 일’ 정도로 비난하는 데 그치고 있으므로, <다>의 준칙에서 말하는 ‘동정이나 싫어함’의 선을 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